

진안군,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

에너지·중대재해·유수관리 3개팀 신설... 경제·안전·환경분야 방침

진안군은 10일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안은 미래진안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인 양수발전TF팀을 에너지팀으로 정식 직제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중대재해팀,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유수관리팀의 신설이다.

또한 진안의 미래가 농촌과 산촌에 있다는 기초 아래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해 농촌경제국의 명칭을 농산촌미래국으로 변경하고 산림과의 직제 순서도 상향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과로, 주거복지팀을 주거환경팀, 문

화재팀을 국가유산팀, 지역경제팀을 민생경제팀, 투자유치팀을 기업지원팀, 재해대책팀을 자연재난팀, 의료관리팀을 의약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과 귀농귀촌팀은 마을공동체팀으로, 관광과 지질공원팀과 마이산관리팀은 지질공원팀으로, 진안읍 복지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은 맞춤형복지팀으로, 인구 1,500명 미만 인면의 총무팀과 민원팀은 총무민원팀으로 통합한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구활력팀이 기획홍보실에서 행정지원과로, 어르신복지팀이

가족행복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교육지원팀이 행정지원과에서 가족행복과로 업무 이관하게 된다.

정원은 650명으로 동결해 증원 없이 인력 및 기능을 재배치함으로써 기능 쇠퇴 분야에서 감축한 인력을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과에 활용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개편은 해당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개편안으로, 조직을 보다 바랄 만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고원도시 진안'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응급환자 무료 이송 돕는다

응급실 내원 환자 구급차 이송 처치 시 전액 지원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포함)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치료를 목적으로 관외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황순배 팀장은 "구급차 이송 처치

료는 전복 및 충청권의 경우 약 15만원~20만원 정도로 그동안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며 "조례를 개정해서 전 군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보건의료원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통합진료실, 소아청소년과, 치과, 응급실(24시간 운영) 등을 운영하며 군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일자리센터-전북 여성단체협의회, 협약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사)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광미자)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사)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야기된 극심한 농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진안군에 도시의 관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진안군의 농업 및 농산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연계 협력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일자리 지원과 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구인·구직정보 공유 △기타 농촌 일손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돌발해충 예방·방제 추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온 등 이상기상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중점 예방 및 저기 공동방제 지도에 나선다.

이번 예방은 돌발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산림 인접 과원에 날아오는 돌발해충(감색날개매미충)의 선제적 방제를 위해 지난달 1,149ha를 대상으로 방제약제 타격을 1,220농가에 배부한 바 있다.

감색날개매미충은 사과, 배, 감 등의 신초에 붙어 나무의 즙을 빨아 생육을 불량하게 하고 배설물을 분비해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해 농산품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이동성이 낮은 약충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김현철 소장은 "선제적인 농작물 돌발해충 예방 및 과원 병해충 관리 지도를 통해 고품질 농산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진행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이 잘 마무리됐다.

무주군,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성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일본 오사카·교토 일대 탐방

무주군은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과 공동 진행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이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2차(1차 5.13~5.17, 무풍·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농번기를 맞아 도로주행형 농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등화장치 부착사업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사전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기, 트랙터 16대에 저속 차량표시등과 방향지시등을 무상 부착 지원한 바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라며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와 지역을 떠나 외국에 같이 다녀온 기억은 오래 잊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 지역 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역사문화탐방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학생들이 글로벌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역사인식을 지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글로벌역사문화탐방 사업비는 군비 3억 2천 3백여만 원이 투입됐으며 사업 대상과 탐방 국가는 무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노인 구강보건사업 적극 시행해야”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 구강건강권 보장 위해 촉구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사진)이 구강질환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인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 촉구" 5분 발언을 하며 많은 노인들이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겪고 자연 치아를 상실하기도 했는데 접근성의 한계로 치과방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의원은 "치아가 상실되면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삼켜서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신체 영양 불균형이 초래된다. 잘 씹고 잘 드셔야 노인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자존감을 올라간다"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치과 접근편의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무주 관내 치과 의료기관 6곳이 대부분 무주읍에 집중돼 있어 먼 지역 노인의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무주군 노인 구강보건사업 실적을 보니 지난해 스케일링 331명, 불소도포 146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희 의원은 노인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차과전용버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 제공 △충치 예방교육과 치주염 예방교육의 병행 및 체계적 예방교육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구강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구강질환의 유병률을 줄이면 구강건강 수명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군민 누구나 웃으며 백세시대를 맞이하도록 노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사업시행을 주문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추가 접수

2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해 신청 가능

장수군은 야간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경운기·트랙터 도로 주행 시 느린 속도와 식별 어려움으로 자동차와 추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등화장치 부착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는 부수차(트레일러)에 농산물 등을 싣고 주행하거나, 야간과 우천 시 저속 주행으로 식별이 어려워 추돌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군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등화장치를 무상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농가의 영농편의를 위해 업체에서 직접 대상 농가를 방문해 등화장치 부착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20

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농번기를 맞아 도로주행형 농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등화장치 부착사업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사전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기, 트랙터 16대에 저속 차량표시등과 방향지시등을 무상 부착 지원한 바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